‘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확산

김경규 농진청장, 스마트농업 현장 방문… 농가 의견 청취 농기센터 과학영농시설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농업연구·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2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시설오이 재배 스마트팜을 방문해 재배환경과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양액재배 방식으로 다다기오이와 일반오이보다 작은 ‘미니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이날 김경규 청장은 “스마트팜 선도농가에서 수집한 환경·제어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이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농가 방문 뒤 부여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팜 통합관제실’과 ‘친환경 종합 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점검하며 지역의 스마트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부여군은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가가 57곳(32.4ha)이며, 이 가운데 선도농가를 선정해 환경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종합 미생물 배양실은 EM복합균, 클로렐라 등 6종의 미생물을 배양해 연간 25,000농가(1,000톤 생산)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김 청장은 자체적으로 배지를 생산해 양송이 재배에 활용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폐배지의 퇴비화 계획 등을 청취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22일 충남 부여군 시설오이 재배 스마트팜 농가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재배환경과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수영 꿈나무’ 육성 지원

홈앤쇼핑,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과 협약 체결

홈앤쇼핑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21일 사단법인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과 유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및 생활안전 수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기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중소기업중앙회장), 이원섭 홈앤쇼핑 대표이사직무대행, 김장성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 이사장·박태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수영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홈앤쇼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체육 꿈나무 육성 △선진 수영 프로그램 연구·보급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장애인 수중 재활운동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은 선진 수영프로그램 연구·보급하고 소외계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등 시민 건강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2019년 설립됐다.

한편, 홈앤쇼핑은 2012년 개국 이후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다양한 사회공헌을 시행 중이며,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바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영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홈앤쇼핑은 지난 21일 사단법인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과 유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및 생활안전 수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FTA 관세 절감 혜택 받고 농식품 수출하세요’

aT, 올해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5%로 전체 산업 평균 75% 대비 낮은 수준인 가운데,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농식품기업은 약 22억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

aT는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참여업체에게 업체별 특화된 맞춤형 FTA 전문컨설팅,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시스템 활용 및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매칭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을 기업별 수출역량 수준과 상황에 맞게 A형 ‘FTA 종합컨설팅’과 B형 ‘FTA디딤돌컨설팅’으로 나누어 최대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A유형은 ‘20년 농식품 수출(예정)기업, B유형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aT 기업육성부(☎ 061-931-0864)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에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 선정

개발공사, 제안서 평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지난 21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세빛발전소(주) 컨소시엄(대표사 한국중부발전(주))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세빛발전소(주) 컨소시엄은 대표사 한국중부발전(주)을 비롯해 호반건설, 현대건설, 전북지역 업체 4곳 등 총 9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는 △투자비의 적정성·합리성·현실성 △사업리스크 관리 방안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사회적 가치실현)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는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 평가를 진행했다”라며, “공동수급에 참여한 전북지역 4개 건설사(총 공사물량의 40%)가 총 투입 기자재의 50% 이상을 지역생산 기자재를 구입하기로 제안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지역상생방안 의결사항을 모두 준수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세빛발전소(주) 컨소시엄과 오늘부터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신속하게 우선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 도시재생 자문단’ 위촉식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2일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 도시재생 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본격화

전북중기청, 계속시장 4곳 · 무주반딧불시장 등 신규 1곳 대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계속시장 4곳(2년차)과 신규시장 1곳(무주반딧불시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에 들어간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익산중매서시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야시장을 위해 ‘빛거리 조성’으로 디자인 경관조명 사업(LED파노라마 형식)을 진행하고, 익산역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 되도록 익산 씨티투어 코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중매서 러블리 인연맺기’와 작년에 이어 ‘야시장 제2회 놀러와 축제’의 규모를 확대, 개최한다.

전년도 사업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익산북부시장은 디자인조명 개선, 장옥방수, 점포 간판정비 사업 등 하드웨어 부분(기반시설 설비)에 보다 집중해 쾌적한 쇼핑환경구축을 중점 목표로 추진한다.

군산명산시장은 지난해부터 주목 받고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교육기관과의 MOU를 체결해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성 및 흥미도를 높이고,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시장 상인 참여를 통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는 한편, ‘국수 경연대회’를 개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봉동생강골시장은 생강의 시배지로서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특성을 살려 첫서리가 내리는 생강 수확철(11월)에 ‘봉동생강골시장 테마축제’를 성대히 진행할 예정이며, ‘웰빙 특화매장 조성’을 통해 1차 년도에 개발된 생강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공연, 영화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올해 1년차 사업이 시작되는 무주반딧불시장은 무주 특산물인 천마를 활용한 ‘특화 먹거리 개발’과 ‘문화콘텐츠 구축’(문화공감 이벤트, 시장 문화 미디어 홍보, 야외광장 LED 스크린 조성), ‘농특산물 특화장터’ 운영을 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무주 방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를 제공해 시장 활성화 붐 조성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북지방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최근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회복세에는 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올해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코로나19로 늦은 출발을 했지만, 우리청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 합심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은 준수하되 동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인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 접목

전북농기원, 인삼 스마트팜 실증연구 현장행정 추진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인삼 재배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팜 실증연구를 김제 청백필름(농업기술원 개발) 시설하우스 인삼 농가 포장에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원은 최근 도내에 인삼 재배 스마트팜 기술이 농가와 상호 소통을 통해 신속히 지역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스마트팜 재배기술은 관행 재배의 가장 문제가 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최근 이상 기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제어 시스템과 농작물 관리의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는 토마토 등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보급(2018년 기준 4,510ha) 되었고 인삼에서는 식물공장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새싹삼을 생산한 위주와 달리 ICT와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4~6년근을 생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핵심기술은 하우스 측창·천창 차광막 개폐와 환기팬 가동, 물 공급 등 복합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인삼 생육에 적정한 온·습도는 물론 토양수분과 광량을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조절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김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된 지금, 인삼 스마트팜 재배는 정밀한 생육 관리가 가능하여 병해충 발생을 줄여주고 잔류농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농법으로 유기농 인삼과 홍삼 원료 6년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에 인삼 재배 스마트팜 기술이 농가와 상호 소통을 통해 신속히 지역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남원축협, 축산 탈바꿈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23일 남원시 내척길 서울농장(농장주 박노창)에서 축산환경개선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축산 탈바꿈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장벽면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외부 경관개선(보이는 냄새 저감)을 통한 환경조성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농촌이미지 제고와 자연친화적 축산업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박성일 본부장은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어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 대상 전환 가능

앞으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리비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후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반대로 입주자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